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4년도 표어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열방의 하나님

(스바냐2장 1 - 15절)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본문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회개를 재촉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1. 회개의 촉구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1절).

죄를 범하고도 죄 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은 파멸치한 사람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겠거니와 계속 흩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2절).

본문에는 '전에'라는 말이 3번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4번 나오며, 이것은 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맞추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를 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공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인본주의적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되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리에 순종하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혹시'라고 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구원에 대해 성도의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

열국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동맹관계, 곧 연약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즉시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4-7절은 블레셋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내 쫓고, 폐허를 만들어 저들을 멸하십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숙적으로서 결국 이들은 역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끝까지 '나의 남은 백성(Remnant)'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야 하며 결국은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섬기게 하십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일곱발을 붙잡으시고 일곱 굵쫓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므로 개인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7절).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꾸짖으셨지만 나중에는 위로하시며 블레셋의 지경을 유다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며 사도잡힘에서 놓이게 하시고 원수를 멸망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8-11절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심판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방해한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8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압과 암몬에게는 교만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리라고 합니다(9절).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것은 유대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는 유대 민족을 끝까지 '나의 남은 백성(Remnant)'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야 하며 결국은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10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던 모압과 암몬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섬기게 하십니다.

12-15절은 구스와 앗수르가 멸망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꼽힙니다. 구스는 애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나 다른 민족보다는 덜해서 미약하나마 아직 그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스에 심판이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존재가 멸절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반면 앗수르는 그 죄가 중하여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15절). 앗수르의 가장 큰 죄는 교만 죄였습니다. 교만한 죄는 사탄의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약 4:6).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압과 암몬, 블레셋과 앗수르처럼 교만의 뿔을 세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요,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존절할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므로 남은 자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4분기 교구일꾼 연합기도회

24일(화)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세재 장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매 분기마다 '교구일꾼 연합기도회'를 열어 교구일꾼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교회내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락방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첫 번 교구일꾼 연합기도회를 2월24일(화) 오후 7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오는 3월1일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공산독재

종식 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대성회'를 위하여 저녁식사를 금식하고 특별헌금으로 이번 성회를 후원하는 기도의 복병이 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교구일꾼(교구지도 목사, 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은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도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교회 모든 다락방이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안내 팸플렛 발송 금주 중에 발송키로

오는 3월 29일(월) 오후 2시에 개강하는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전국의 교역자를 초청하는 안내 팸플렛이 금주 중에 발송되어 본격적으로 목회자신학세미나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학기 안내 팸플렛은 오는 3월1일 우리교회 본당에서 있을 '공산독재 종식 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 대성회'에 초대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하며 교회강신연구원 동문들도 이 날 행사에 초

청하여 기도의 소명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는 교회강신연구원(원장 홍정호 장로)은 지금까지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로 준비되어온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 학기에도 계속되도록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유학생 부모를 위한 특강

2월 27일(금) 오후 7시30분 - 9시, 장소: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교회는 교우들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유학생의 부모를 위한 특강"을 가지려 한다. 강사로 모시게 된 박성수 장로는 이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동안 서울대 교수 및 전주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명지고등학교장으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계신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한 도움,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 등을 강의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부모, 유학 보내 시려는 부모, 또한 유학 다녀온 자녀를 둔 부모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란다.

금주의 성구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 34:29-30)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with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in his hands, he was not aware that his face was radiant because he had spoken with the LORD. When Aaron and all the Israelites saw Moses, his face was radiant, and they were afraid to come near him. (Exodus 34:29-30)

순례자 특집 기사

인터넷에 부는 성경이여쁘기 바람

교회가 성경 통독을 권면하고 매년 구경 연휴에 성경통독사경회를 열어 성도들의 성경 통독참여를 도운 이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새벽침상에서,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수시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만나는 성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 저녁예배 시간, 한꺼번에 성경 4독을 하고 교회로부터 소정의 기념선물을 전해 받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성경 읽기의 불이 교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순례자에서는 이미 원로권사님들이 묶어낸 신약성경 필사본과 1년여에 걸쳐 대확노트에 성경을 기록한 권사님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말씀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통신에서 만나는 모임)에서 말씀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종이와 펜보다는 컴퓨터와 자판에 익숙한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성경이여쁘기 꾸준히 가져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과 선교 등의 사역을 돕고 있으며, 각 교회학교를 링크(연결)해 두어서 원활한 온라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교회학교에서는 제각각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클럽 등의 개성 있는 형태로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와 교제의 나눔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수시로 접속하고(만나고), 다양한 글과 그림, 사진 등을 통한 고백과 간증이 이 인터넷 공간에 가득하다. 또한 기도제목물 나누는 등 유익한 하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성경이여쁘기> 코너를 운영하는 초등부와 청년부는 연일 많은 회원들이 틈나는 대로 자신의 처소에서 성경을 읽고 타이핑하여 기록해 나가는 말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 초등부 카페 cafe.daum.net/littlepilgrim

▼ 청년부 홈페이지



시온 찬양대에도 성경이여쁘기가 한창이다. 시온찬양대에서는 모세 성경이 끝난 후 한 사람을 추천하여 시상하였는데 구약이 끝나면 또 한 번 시상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경의 각 권을 쓰기로 결심한 이가 온전히 한 권을 필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성도가 함께 이어쓰기도 한다. 타이핑된 성경의 각 장은 다시 자료가 되어 다른 성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열어 볼 수 있는 전자 성경이 된다. 초등부와 청년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성경이여쓰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비단 교회 학교 뿐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부서와 소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한 주일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존음을 아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기도한다. 나소정(편집부)

▼ 시온찬양대 카페 cafe.daum.net/ZIONchoir

순례 전국일꾼 양성-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마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 Born Again



지난 16일 오전 9시, 702호 실에는 한 여자아이가 앉 아 있었다. 수련회 시 작은 아직 1시간도 넘게 남아있는 시간.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묻자 '겨울

수련회가 재미있을 것 같아 초등부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일찍 왔다며 얼굴을 붉혔다. 얼마 뒤 복도에서 만난 남학생은 '성가대를 맡고있어서 일찍 왔다'며 팔개 웃는다.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나 들씩 교회로 모여드는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10시30분. 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듯 웨스트민스터 홀을 아이들로 가득 메운 채, 교육1국(중등부 제외)의 합동 개회예배로 겨울수련회는 그 이틀간의 막을 열었다.

16일에서 17일의 이틀간에 걸친 이번 겨울 수련회에는 약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고, 유아부에서 유년부까지는 무박 2일, 초등부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찬양과 율동, 반별 성경공부, 만들기 등 흥미유발과 함께, 유년부와 초등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름붙여진 게임에서 보여주듯이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작,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비디오감상, 인형극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적인 구성으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수련회에 지속적인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유아부는 아기들과 별개로, '바람직한 자녀양육방법'을 주제로 한 학부모의 강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은혜중에 진행된 이번 겨울수련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 한껏 자라는 기회가, 어른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오주명(편집부)

김고은(초등부)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거듭나는 것, 많은 성경 지식을 알게 된 고은이예요

저는 이사 와서 친구도 없고 해서 성경학교가기 전날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자기 전에도 걱정 빨리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해 달라



고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브보드 활동할 때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좋았고 특히 성경퀴즈 대회 때 그렇게 많이 활동은 못했지만 성경지식도 알게 되서 좋았어요.

하지만 중간에 사탄이 저를 꼬시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신 차리니까 선생님한테도 죄송하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와서 성경공부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성경퀴즈 연습도 하고 한계 기억에 남아요. 여름성경학교 때는 더~욱 열심히 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사는 그런 고은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파이팅! 초등부 선생님들도 화이팅!



이지수(중등부)

살롱! 저는 중등부 전도부장 입니다. 이번에 가평에서 열린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해서 수련회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하니 몇몇 친구를 빼고는 모두가 서먹서 먹하였고 조편성도 친한 친구들과는 다 떨어져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조장이 되어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많이 친해졌습니다. 조별 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회의 아이들이 정말 많은 재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 활동들은 무척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깊은 뜻도 있었습니다. 그중 "암호풀기"가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음악의 음계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었

는데, 모든 조가 그 암호를 서로 먼저 풀려고 힌트를 얻기 위하여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과자도 드리면서 즐겼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 그 한 구절을 듣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듣기위해 애써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아멘!" 할만하죠? 다른 활동들도 다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 시간에는 찬양으로 시작해 기도를 끝을 맺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는 가슴이 막 벅차올라 주님께 경배 드리고 싶었고, 기도 시간에는 주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여름 수련회 때에는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또 저희들을 위해 너무나 애써 주신 선생님과 장로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박성우(대학부)

그렇게 고대하던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다. 사실 학원에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며칠 빠지는 것이 아깝고, 학생으로서 25000원이 적은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이것저것 따지진 않고 그냥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믿는 구석이 있었다면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할 때 더 주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종운 목사님의 기도도 출발하게 된 대학부 수련회. 개회예배부터 시작해서 지체 알아가기, GBS(조별성경공부), 목사님설교, 기도회 그리고 폐회 예배까지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 GBS이다. 내가 조장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한사람 한사람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GBS의 내용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였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 공부를 통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오히려 나를 알아가는 기분이었다. 나란 어떤 사람이며, 나를 위해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삶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것이 나에게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갈 2:20)



장로가정탐방 - 은봉준장로 가정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랴

발명가 윤봉준 장로님은 수많은 기계를 발명했고 개발하고 있다. 마산 앞바다 가덕도에서 출생한 장로님(에바다 부 부장)은 3남 3녀 중 차남으로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의 형편때문에 하마터면 부친과 형을 따라 어부가 될 뻔했다. 그러나 배 밑머리를 심하게 하여 배를 못하게 되자 부친은 그를 부산으로 보내며 기술을 배우라고 했다.

6.25 사변 당시 고향 가덕도에는 서울서 피난민이 내려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고 7세 소년 윤봉준은 동네 친구들과 우유와 빵을 먹는 재미로 교회를 출입했다. 타지로 나온 윤 장로님은 한참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군대에 가서 신학생 친구를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당시 일등병이었던 그 친구는 이리저리 핑계하는 윤 장로님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동료와 부하들에게 헌신했던 겸손한 사람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다. 윤 장로님은 그 친구를 통해 믿음을 가지며 공장을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마셔야 했던 술을 끊고 평생 성수주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제대를 하였다.

후로 윤 장로님은 성수주일 문제로 다니던 직장에서 세 번이나 쫓겨나야 했다. 어떤 회사에서는 오전에는 교회를 가더라도 오후에는 나오라고 했지만 그는 이마저도 단호



히 거절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즈음(주)농심에서 수입되는 기계부속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급히 기계부속을 개발하여 납품에 성공하게 되었다.

윤 장로님은 이 일을 계기로 자립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친구란 뜻의 주우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면서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품으로 내놓는다. 만일 그때 성수주일 문제를 회사와 타협했다면 그는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이 체험하였다.

아내 김명화 집사와는 74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은숙과 요셉,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요셉은 방송실에서 3년간 봉사하다가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컴퓨터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집안일과 공장 일을 두루 살피며 남편을 대신해서 자재구입까지 하러 다니며 간절한 기도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 김명화 집사에게 윤 장로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한다고 한다.

윤 장로님은 70년 서울로 와 섬기던 교회에서 88년 이종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삶에 박ப்பட்ட 그에게 이목사님의 목회철학과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은 그의 신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목자를 따라 서울교회로 왔고, 93년 장로 장임을 받게 되었다. 그때 함께 서울교회를 설립한 오정수 장로님은 청년부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로 기계를 개발할 때마다 자금이 없어 쪼쪼매던 그에게 오 만원, 십 만원 씩 당시로서는 적지 않았던 돈을 주며 격려를 하였던,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찾아 의논을 하는 진실한 믿음의 친구라고 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이사야 43장 1-3절, 가덕도에서 태어난 윤봉준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말씀은 청년시절 그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되었고, 청년 시절 밤이 새도록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한 귀한 말씀이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중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때가 없었다.

윤 장로님은 건강 때문에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 송구스럽다. 이종운 목사님도 체중이 60kg만 되면 양복을 한 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의 건강을 염려 하신다며 그러나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조금만 더 있으면 양복을 받을 수 있겠다며 소년 같은 웃음을 웃는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는 윤 장로님, 그는 오늘도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허 숙 (편집부)

주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갑연 집사(2교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과 신앙적 갈등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때마다 나에게 더 큰 시련과 역경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새 원망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생활의 제일 큰 방해꾼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가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남편을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나 자신과 주님께 약속하였습니다.

매일 혼자 정한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던 중 우리 가정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삶의 터전인 세탁소가 큰비로 인해 침수되어 기계며 손님의 옷이 모두 못쓰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남편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뒤늦게 아들 요한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편은 드디어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는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나의 소망을 따라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남편 김원중 집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생활도 잘하고 말씀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화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월)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를 소집한다. 26일(목) 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 주간 식당봉사: 모세남선교회(2월22일) 도르가 여전도회(2월29일)
- 금주의 식사: 이영기장로·이영권선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교회보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목회자 세미나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공산독제 종식·민족복음화 3.1절 목회자 금식성회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